

허정무 감독 16강 해법... 1승 1무 + ?

그리스 반드시 꺾고 아르헨티나엔 선전 나이지리아와 최후 승부

“아르헨티나가 3전 전승을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를 큰 점수차로 잡아준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허정무(55)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목표를 이루는데 ‘선택과 집중’을 고려한 16강 시나리오를 27일(한국시간) 살짝 공개했다. 허 감독은 이날 훈련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리스와 첫 경기는 ‘필승’, 아르헨티나와 2차전은 ‘선전’, 3차전 나이지리아 맞대결은 ‘승부수’라는 나름대로 16강 구상을 밝혔다.

조별리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안정권은 1승2무(승점 5) 이상이다. 조별리그 상대국 세 팀 중 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그리스를 반드시 꺾고 나서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와 각각 비겨야 하는 셈이다.

객관적인 전력상 쉽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2승1패(승점 6)보다는 그나마 나은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6강 진출 티켓 확보하는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1승1무1패다.

16강 진출 여부를 가름하는 그리스와 1차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한 뒤 아르헨티나에 덜미를 잡히더라도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이야기다.

2차전에서 맞붙는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FC바르

셀로나)·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디에고 밀리토(인테르 밀란) 등 초호화 공격진을 보유해 화력을 당해내기 어렵다.

다만 ‘오토 대제’ 오토 레하겔 감독이 지휘하는 그리스는 한국이 넘기에 그리 높은 벽은 아니다.

제공권이 좋고 세트피스에 강한 장신 선수들이 경계대상이지만 한국이 초반 실점을 하지 않은 채 느린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파고든다면 그리스의 골망을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강호지만 스웨덴 출신의 라르스 라에르베크 감독 취임 이후 아직 팀이 완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분위기다. 한국으로서도 지레 겁을 먹게 할 만큼 위협적이 상대가 결코 아니다.

허정무 감독은 “아르헨티나가 3전 전승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별리그 시나리오를 보면 첫 경기 가장 중요하고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와 경기도 1차전 못지 않다”면서 “하지만 그리스를 누르고 분위기를 탄다면 아르헨티나에 지더라도 나이지리아 경기에서 승부수를 던질 만하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선 나이지리아와 1승1무1패로 동률이 되더라도 골 득실차로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2위까지 주어지는 16강 티켓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연합뉴스

공포의 20m 왕복달리기...1200m 고지대 체력 테스트

태극전사들 적응 훈련

오스트리아에 도착해 훈련 이틀째, 아직 몸도 덜 풀린 축구대표팀을 기다리는 것은 ‘체력 테스트’다. 27일 오전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 캄플 훈련구장에서 첫 훈련을 지휘한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내일은 체력 테스트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허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이 평지에서 측정했을 때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의 성공 열쇠 중 하나는 바로 고지대 적응이다.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본선 조별리그 2차전을 해발 1753m의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치른다.

허 감독이 남아공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전훈 캠프로 해발 1200m에 가까운 노이슈티프트를 고른 것도 그 때문이다.

이달 중순부터는 선수들의 체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 시 무선 송수신기의 신호를 사용해 선수 개인의 체력 및 전술 수행 능력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무선 경기력 측정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번 오스트리아 전훈은 물론 남아공에서도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직전까지 사용한다.



태극전사들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무선험측정기를 달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들의 체력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공포의 백백’로 불리는 20m 왕복 달리기(셔틀런)로 진행된다. ‘요요테스트’라고도 부르는 셔틀런은 선수들의 가슴에 심장박동 측정 센서를 부착하고 무선 전송장치를 통해 피로 회복 속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밑거름이 됐던 테스트이기도 하다. 테스트 강도가 높아 선수들에게는 악명이 높다. /연합뉴스

브라질 국민, 월드컵 기간 중 1인당 평균 120만원 쓰겠다

‘작쟁이’ 네덜란드인 7만원 소비

“브라질 국민은 자국 국가대표팀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까지 평균 800유로(120만원) 소비를 늘릴 의사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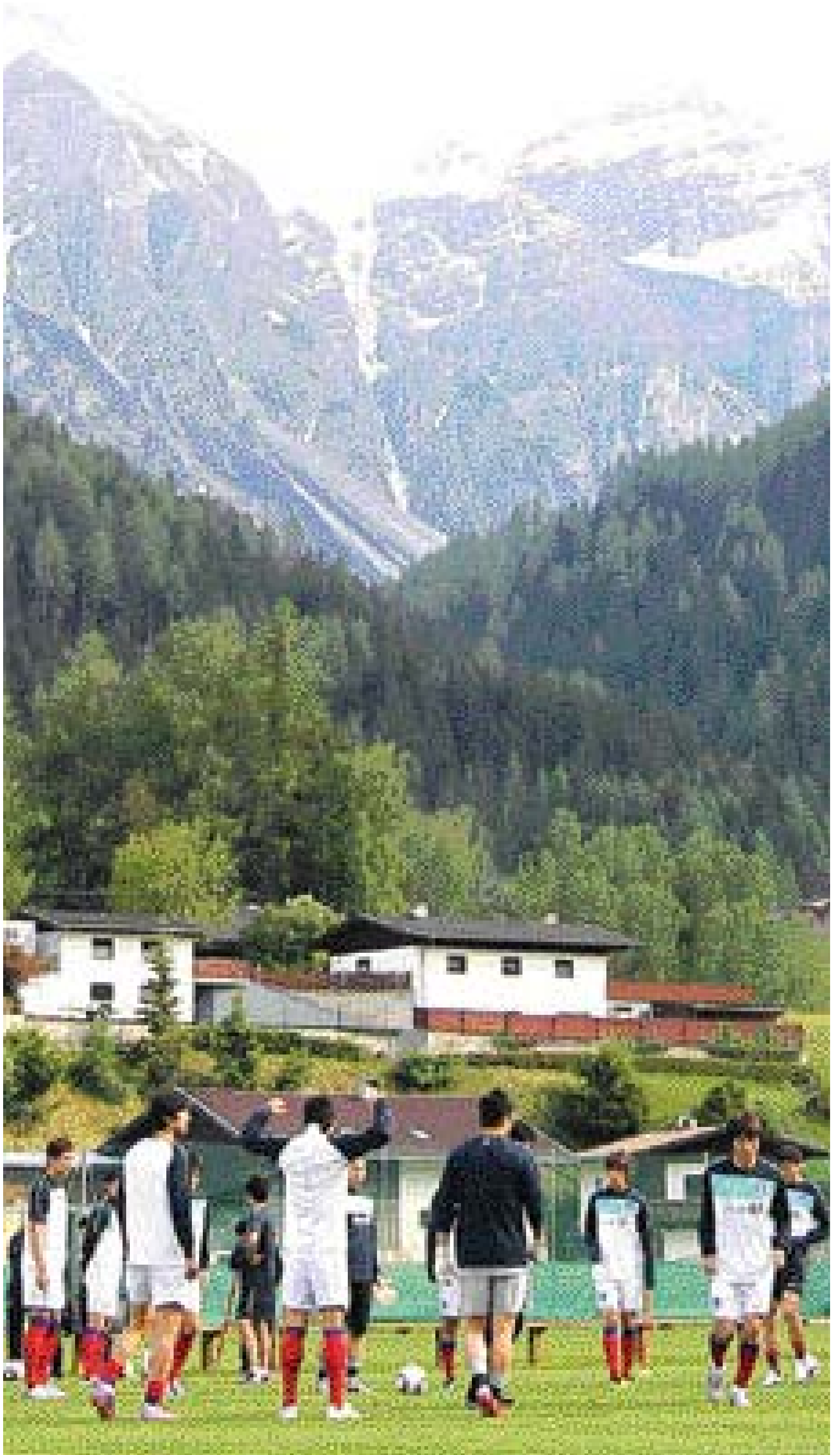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가운데 하나인 월드컵축구대회 개막을 앞두고 네덜란드의 세계적 금융그룹 ING가 26일 대회기간 소비행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월드컵 우승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 발표해 눈길을 끈다. ING가 조사 전문기관 TNS와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은 경기를 시청하면서 인스턴트 식품과 주류 소비를 늘리고 대표팀 유니폼 등 관련용품·기념품을 구매하는 데 1인당 평균 813유로

를 ‘특별’ 지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실시된 12개 국가 가운데 월드컵 기간에 평균 400유로 이상 소비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국민은 브라질이 유일하며 두 번째로 특별 지출 액수가 큰 포르투갈(평균 368유로)보다도 450유로 가까이 많은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특히 응답자의 72%가 “대표팀이 우승만 한다면 3주간 무급휴가를 떠날 용의도 있다”고 답할 정도로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다고 ING는 해석했다.

반면, 이번 대회 ‘오픈전 군단’이 4강 이상의 호성적을 내리라 기대되는 네덜란드에서는 대표팀이 우승까지 이룬다는 전제 아래 1인당 평균 47유로(7만원)의 소비를 늘릴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작쟁이’ 네덜란드인의 성격을 확인시켰다.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에서 탐금질을 시작한 태극전사들이 27일(한국시간) 캄플훈련구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노이슈티프트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마을을 둘러싼 알프스 산지락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연합뉴스

마라도나 “아르헨 우승엔 누드 세리머니”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우승할 경우 누드 세리머니를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마라도나는 지난 26일 아르헨티나 신문 올레(Ole)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 오벨리스크 앞에서 팬들과 함께 누드 세리머니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벨리스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서 가장 큰 도로인 ‘7월 9일 거리’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물이다.

마라도나의 이 같은 약속은 1978년과 1986년 월드컵에서 두 차례 우승한 이후 24년간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한 한을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그리스·나이지리아와 함께 B조에 편성돼 있으며, 16강에 무난히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KBS, 월드컵 단독중계 SBS 고소

KBS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과 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을 단독 중계기로 한 SBS의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7일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2010~2016년 올림픽과 2010년·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로 IB스포츠와 비밀합의문을 작성하고도 2006년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